

나주시·주민·시민단체, 작은 도랑 살리기 나선다

반남면-‘푸른나주 21협의회’ 업무 협약

나주시가 각 읍·면을 가로지르는 작은 도랑 살리기에 나선다. 행정기관은 물론 주민, 시민단체 등이 함께 도랑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18일 “지난 16일 반남면 사무소에서 반남면 소재 월현·이암·

자미마을과 푸른나주21협의회(회장 이만실)가 ‘도랑살리기 사업’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각종 생활하수와 쓰레기 등으로 오염된 마을 도랑을 예전의 밝게하고 가재 잡던 모습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로 열렸다.

반남면은 사업 전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예정이다.

면은 도랑 준설, 수중생물 식재 등 주요 공사를 담당하고, 환경단체는 마을주민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마을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 협약식을 맺은 직후 푸른나주 21협의회 오성현 간사는 마을주민 30

여 명을 대상으로 도랑의 중요성, 도랑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신광재 반남면장은 “업무 협약식을 나주시를 대표하는 환경단체인 푸른나주21협의회, 마을주민들과 협력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깨끗한 도랑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만실 푸른나주21협의회장은

“도랑살리기 사업은 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민관 공동추진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반남면 소재 3개 도랑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해 시행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사회적 협동조합 나주발전연 출범

초대원장에 홍석태씨



(62·사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나후와 함께속에 갈등과 반목으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나주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나주지역역량을 총결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에 부응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혁신타운을 원도심에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봉황면 출신으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을 역임한 개발경험과 실무를 갖춘 지역인재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초대원장에 취임한 홍석태

나주발전정책과 전략수립 등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순수민간차원의 전문연구원인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주발전연구원협동조합은 18일 각 분야 전문가와 조합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나주에서는 민간단체 가운데 최초로 꾸러진 연구원은 소외된 지역인재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실무를 갖춘 지역인재들을 활용할 계획이다.

초대원장에 취임한 홍석태



편백 제품 한자리서 전시·판매

옛 월평초교 황룡분교에 장성편백유통센터 개관

장성군이 지역에서 생산된 편백 관련 제품을 한 데 모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황룡면 아곡리에 위치한 옛 월평초교 황룡분교에서 장성편백향토사업단 관계자 및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편백유통센터(사진) 개관식이 열렸다.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건립된 장성편백유통센터는 연면적 348㎡, 지상 1층 규모로 편백제품 전시실 및 판매장 등의 시설을 갖췄다. 편백향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체험방을 통해 천연 염색체험과 편백 비누만들기, 편백나무 블록 놀이 등의 체험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의 총괄운영은 지난 11월 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업회사법인인 장성편백향토사업단(주)에서 맡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강진, 반찬산업 벤치마킹

장성 북하사업단 등 방문 콩 가공식품 노하우 배워

강진군이 각 부문별로 전남지역 각 지자체를 찾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무분별한 해외 탐방보다는 바로 도입이 가

능한 가까운 지역 사례를 찾아나서고 있는 것이다.

강진군은 18일 “박근조 강진군 부군수, 관계 공무원, 반찬사업장 대표 등 9명이 최근 장성군의 식품 선도업체인 ‘북하사업단’과 ‘송계북청국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서리태 흑두부, 청국

장, 환 등 공 관련 가공식품 개발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또 반찬산업 육성을 통해 강진 한정식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 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원료를 공급하는 농가의 소득증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강진군은 지역 농수산물을 기반으로 반찬사업을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i@



세지 옛길 돌담 조성

나주시가 연말까지 연장한 ‘공동체 일자리사업’ 참가자들이 18일 오전 세지 옛길 돌담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노인, 부녀자 등 저소득층 250여명의 자립을 돕기 위해 14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16가지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대학총장이 화순 문화안내서 펴내

전남도립대 구충곤 총장 남도 역사문화 기행 출간



지정된 숲정이 마늘,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담, 운주사 천불전탑, 적벽 등이 특히 유명하다.

이 책에서 구 총장은 화순의 문화 유적과 역사 현장, 노동과 삶의 터전, 멋스러운 명소에서 희생의 길을 발견하기 위한 노정의 자취와 심정을 적었다.

북 콘서트는 오는 21일 오후 8시 화순 하니움 문화소프트센터에서 ‘구충곤과 함께 하는 남도역사기행-문화로 시대를 깨우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전남도립대 구충곤 총장(55·사진)이 화순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를 최근 출간했다.

‘남도 역사문화 기행(화순편)’은 화순이 의향, 문향, 학향으로 알려진 이유와 배경을 비롯해 환순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를 담았다.

화순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8점, 도 지정 문화재 36점, 문화재 자료 18점 등이 산재해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 공원을 비롯해 아름다운 숲으로

전북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이전 개소식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7일 남원시 동림로 116(구 상수도사업소)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자원봉사단체장 및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새롭게 자리한 자원봉사센터는 강당,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을 갖추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

‘서남권 지자체 시티투어’ 호응

〈정읍·고창·부안〉

134차례 운영 2000여명 참여... 통합관광시스템 정착

전북 서남권 지자체인 정읍시와 고창·부안군이 협력사업으로 서남권 시티투어를 추진하면서 통합관광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2011년 서남권 관광자원 공동개발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유치와 서남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3개 시·군의 공동관광권역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명소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인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서남권 시티투어’를 운영, 지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사업을 주관한 정읍시는 18일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34차례를 운영, 모두 195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관광객 참여도를 보면 전북권이 5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0.8%, 광주·전남권 10.3%, 대전·충청권 10.2%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와 부산·경상권, 미국과 중국에서도 찾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자 수가 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티투어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남권 시티투어 성공을 계기로 3개 지자체 연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물론 타 지자체에도 지자체 연계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3개 시·군은 올해 성과를 토대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권역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남권 시티투어는 45인승 대형버스가 오전 10시30분 정읍역을 출발해 고창 고인돌유적지, 고창읍성을 둘러 부안 청자박물관, 채석강을 거쳐 무성서원 및 99간 김동수가족, 정읍시여인봉, 솔타에떡을 체험하는 일정이다.

차량에는 각 시·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 문화유적 및 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정읍=백기범기자 parkbs@

단신

고창·정읍시, ‘메이플-스톤 지원센터’ 추진

고창군과 정읍시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3년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이 선정돼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는 지난 10월 개소했으며, 이달 말까지 각 지역 읍·면·동을 순회하며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정읍시와 고창군이 함께하는 ‘광역창안대회’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공모에 들어가며, 세부사항은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센터 및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순창, 기업유치 민간인·공무원 포상금

순창군이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큰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4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민간인은 최고 1000만원 이내, 공무원은 최고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기업유치 대상은 타지역에서 순창군내로 이전·증설 또는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민간인 2명에게 559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용결산 ‘치유의 숲’ 만들다

순창군, 20억 들여 정자·쉼터 등 조성

순창군이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라북도 최초로 용결산 치유의 숲을 조성했다.

섬진강변에 위치한 동계면 용결산은 순창의 3대 명산으로 해발 646m로 숨은 비경을 자랑하고 있다. 군은 이곳 군유림 203ha의 면적에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치유의 숲을 조성 완료하고 탐방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는 83종의 수목 12만6000본과 13종의 초화류 4만본을 식재했으며, 테크로드와 휴게데크 8곳, 정자 1곳, 원두막 3곳, 탐방로 등 명상의 쉼터를 만들어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정자는 만인의 힘터 귀룡정이라고 명명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정, 피곤한 마음을 씻는 세심정, 깨끗한 바람을 쐬는 청풍정 등의 원두막을 치유 공간으로 제공한다.

이곳의 체험거리 중 하나는 섬진강을 건널 수 있는 짐꾼다리 산책과 숲속의 돌길 산책이다. 4km에 조성돼 있는 돌길은 강천산과는 또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 12개의 화원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조성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전북 최초로 치유의 숲으로 만들어진 순창군 동계면 용결산 전경. 순창군은 내년에 이곳에 식물원과 트레킹길도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곳 용결산은 전국 최초로 산을 디자인해 전국에 명소를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자생식물원 한 휴식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대-LG전자, 모로코 태양전지 연구개발

전북대가 LG전자와 함께 모로코 태양전지 연구개발에 나선다.

전북대 태양에너지 연구센터는 18일 “모로코에 태양광 에너지 기술 전수를 위해 LG전자 소재부품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 모로코 국가연구소인 신재생에너지연구소와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모로코는 태양광이 풍부한 솔라라트 지역의 국가로, 2020년까지 20GW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 고임선발 시험장 주변 주정차 단속

전주시는 18일 “오는 20일 치러지는 2014학년도 고임선발시험 수험생의 원활한 입실을 위해 시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험장 200m 앞에서 차량진·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2km 이내 간선 도로나 교차로에 교통단속요원을 배치해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험생 긴급 수송을 위해 차량 12대를 지원한다.

전주지역 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시험에는 지난해보다 192명이 늘어난 7985명이 응시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